

# 고흥투어 코레일 관광열차, 겨울 비수기에도 '복직'

### 관광객 500여 명 방문...소록도·거금대교 투어 한센인 역사·신선하고 저렴한 해산물 매력에 빠져

고흥군은 지난 5일 코레일 관광열차를 타고, 500여 명의 관광객이 고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처음 맞이하는 새해 1월,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관광객들이 고흥을 방문해 고흥의 관광지들을 가득 매웠다.

지난 5일 오전 8시에 청주역 관광열차를 탑승한 관광객들은 순천역에서 관광버스 소록도, 거금대교를 거쳐 녹동항에서 소포 및 저녁식사를 갖는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투어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한 코레일과 여행업체가 연계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의 역사의 역사와 이들을 향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를 연결하는 거금대교 등을 둘러보며 공감과 힐링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청정해역 고흥 앞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어판장과 견어물 판매장 및 다양한 메뉴의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 녹동항은 관광객들로 가득 차,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다.

군 관계자는 "관광 비수기에 관광열차를 통해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며 "온화한 기후와 신선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이 관광객들에게 겨울철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 주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지난 5일 코레일 관광열차를 타고온 500여 명의 관광객이 고흥을 방문했다. 사진은 고흥투어 참여 관광객들이 소록도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 보성,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10% 공제

보성군은 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팔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괄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 광양, 작년 청렴정책 평가 최우수에 선정

###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해



정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부서순회 청렴컨설팅,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민관합동 청렴워크숍, 청렴실천 캠페인, 반부패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찰·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데 이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이번 청렴정책 평가에서 최고 점수 인증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공직자의 자존심이다"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청렴도 최고 기관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 구례, 수락폭포 수질보호 강화 대책 마련

### 주제공원 지정 고시...체계적 자연자원 보존 기대



구례군의 대표 관광지 수락폭포.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의 대표 관광지인 수락폭포 상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주제공원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주제공원은 조경시설 2만660㎡, 치유의 숲과 쉼터 등 휴양시설이 5천871㎡이며 녹지 및 하천이 25만

250㎡로 계획돼 있는 등 전체 29만1천 819㎡로 구성돼 있다.

군은 2015년 9월 15일 수락폭포 상류 개발제한방안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를 4회 실시하고 구례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군 계획위원회의 원안수용

의결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31일 주제공원으로 결정 고시 했다.

수락폭포는 구례군의 10대 명승지의 하나로 15m 높이의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 몸으로 맞으면 각종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폭포 상류가 농지와 임야로 구성돼 있어서 30여년 전부터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벼농사 위주에서 벗어나 나무를 식재해 수질을 보호하고 있었다.

한편, 구례군은 주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토석과 나무 굴취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 폭포 수질과 관련된 하천 주변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연 자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계획을 통해 관광객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 순천에 뿌리 내린 사람들 이야기 25일까지 '정착 사례 수기' 공모

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순천에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 '순천시 정착 사례 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기공모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길라잡이로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순천에 정착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직장, 귀농·귀촌, 질병치료, 은퇴 후 정착 등 다양한 사례와 인구정책 제언서를 작성해 사진과 함께 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주제의 적합성, 완성도, 구체성, 효과성 등 서면심사 통해 선정되며 입상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공모 안내는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hyeongk@kor.ea.kr)과 우편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